

광주·전남 목표액 전년比 4~6% ↑ “올해도 펄펄 끓길”

지난해 ‘사랑의 온도탑’ 100도 넘겨
경기침체 속 지역민 나눔참여 절실
위기가정·돌봄지원 등에 성금 사용
개인이 동참하는 소액기부 등 절실

경기침체로 기부 문화가 움츠러든 상황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사랑의 온도탑’이 끓는 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광주·전남 사랑의열매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더욱 많아진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3일 광주·전남 사랑의열매에 따르면 연말연시 집중모금 캠페인인 ‘희망2024나눔캠페인’이 지난 1일 막을 올리고 내년 1월31일까지 62일간 대장정에 들어섰다.

올해 광주 모금 목표액은 50억7000만원으로 전년 목표액(48억4000만원) 대비 104.7% 수준이다. 전남의 경우 105억5000만원으로 전년 목표액(99억2000만원) 대비 106.4%다.

경기침체 등 요인으로 기부 문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광주·전남 사랑의열매가 목표액을 올린 것은 지난 캠페인들의 잇따른 성공 때문이다.

모금 실적을 온도로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펄펄’ 끓었다. ‘희망2023캠페인’ 당시 광주·전남은 캠페인 종료 각 2일, 6일 앞두고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다. 최종 온도는 광주 105도(50억8100만원)·전남 106.7도(105억9900만원)에 달했다.

광주 5개 자치구별 모금 실적을 살펴보면 북구가 10억7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구 6억4400만원 △남구 5억3400만원 △동구 3억7300만원 △광산구 1억6300만원 순이었다.

전남 22개 시·군별로는 여수가 12억70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순천 6억8600만원 △영광 5억7400만원 △나주 5억6200만원 △장성 4억53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 희망나눔캠페인은 이전부터도 좋은 성적표를 받아왔다. 2020~2022년 광주의 목표액 달성률은 △2020년 102.8%(55억100만원) △2021년 100.3%(42억2100만원) △2022년 135.5%(57억3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전남도 △2020년 100.9%(99억5100만원) △2021년 131.2%(103억6700만원) △2022년 118.9%(106억2900만원)으로 매년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와 지역 사업체의 경영악화 등이 겹쳐 지역민의 나눔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건설업과 전자제조업 등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물가 상승, 고금리 등이 시민들의 나눔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기침체는 저소득층에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은 추위에도 난방을 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돌봄 이웃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다”며 나눔 참여를 독려했다.

전남도 역시 ‘개인 기부’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올해 고물가, 고금리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어 지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실제 올해 전남의 전체 모금액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다만, 개인 기부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3000건가량이 늘었다.

기업이나 단체의 기부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동참하는 소액 기부의 힘도 매우 크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랑의열매는 ‘희망2024캠페인’을 비롯해 △가족이 함께 기부하는 ‘착한가정’ △자영업자가 매출액의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가게’ △직장인 급여의 일부를 정기 기부하는 ‘착한일터’ △반려동물과 함께 기부하는 ‘착한펫’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모임 ‘나눔리더’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터’ 등 폭넓은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 △기초생계 지원 △교육·자립 지원 △주거·환경 개선 △보건·의료 지원 △심리·정서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소통과 참여 확대 △문화 격차 해소 등 8개 배분분야 복지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정무창 시의회 의장, 박철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지난 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제막식을 갖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은 50억7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나건호 기자

“소다수 캠페인·그린열매 나눔캠페인…”

노동일 전남 사랑의열매 회장

“어려울수록 나누려는 마음 커
캠페인·나눔리더 등 참여 독려”

“전남지역 모금액은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개인 소액기부 건수는 3000여건 늘었습니다. 경기침체로 기부문화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지만 도민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나누려는 마음이 더 커다는 걸 느꼈습니다.”

노동일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남 사랑의열매) 회장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는 일상 속 캠페인을 통해 효과적인 기부 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 기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구세군 자선냄비에 현금을 넣지 않아도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발맞춰 전남 사랑의열매는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노 회장은 이 같은 변화가 지난 1일 시작한 희망2024나눔캠페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노 회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2일간 희망2024나눔캠페인이 전개된다”며 “전남은 희망2018캠페인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캠페인 모금목표액을 모두 달성했다. 2013년 60억원 모금에서 지난해 100억을 돌파했다. 소중한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올해 역시 모금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사랑의열매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캠페인 모금 목표액 달성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나눔문화가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위한 현금 기부’를 넘어 동물, 환경 등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에 기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로 울리는 아리랑

Arirang To The World

2023 . 12 . 08

Fri 19 : 30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

주최
Jindo  정선군  밀양 

주관
arirang 아리랑국제방송 全南日報